

# 익산, 맑은물 공급 '상수도 현대화' 추진

### 내년부터 5년 간 616억원 투입... 유수율 상승으로 예산절감 효과

익산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사업비 616억원(국비320억원, 도비56억원, 시비240억원)이 투입된다. 첫 번째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557억 3,300만원이 투입되며 익산시 일원 블록시스템 31곳 구축, 상습 적수발생지역 및 반복 누수지역의 노후상수관 L=148km 교체, 가압장 8곳 설치, 누수탐사, 구역고립 확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두 번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사업비 5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년 동안 추진되며 정밀여과장치와 자동수질 측정장치, 관세척,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의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 세 번째 노후 상수관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7억 2,300

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년 동안 노후 상수관로 433km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현재 71.4%인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율이 1% 증가할 경우 연간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앞서 익산시는 상수도 정비를 위해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자체적으로 추

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시 자체에 산으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9월,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에 선정돼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은 "환경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공급 사업이 국·도비지원 결정으로 한층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선정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장영원 기자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지주의 만행에 항거한 농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제92주년 옥구농민항일항쟁 행사를 개최했다.

## 제92주년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지주의 만행에 항거한 농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제92주년 옥구농민항일항쟁 행사를 개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임피중학교 내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유공자 후손 및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재현행사와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앞(임피중학교 내)에서 이어진 식전공연에서는 민요와 호남검무보존회의 검무에 이어 예술검무리아트문 단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유있는 거부·제폭 구민(除暴救民)'이라는 주제로 옥구농민항일항쟁 재현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재현 퍼포먼스에서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요. 우리의 거부는 마땅한 것입니다. (종락) 우리 민족 역사와 전통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농민항쟁열사의 일제에 저항하며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이 더해져 행사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 재현행사 후 거행된 기념식은 국민 의례와 헌화, 경과보고, 기념사, 격려사, 축사, 애국지사 소개, 독립유공자 후손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인 이진원 군산문화원장은 기념사에서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이어받고 열을 되새기는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임준 군산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고장 항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시민 호응

### 예약 후 혈압·키·인바디 등 측정... 분석 통해 체력 검정 받아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산체력인증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개관한 '군산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전주, 남원에 이어 군산시에 세 번째로 건립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력인증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청소년(만13세~18세), 성인(만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져 체력측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이용방법은 군산체력인증센터에 전화예약을 신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접수 할 수 있으며 현장에 도착해서는 신분 확

인 후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로 환복하고 개인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다음 혈압, 키, 몸무게 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을 측정하게 된다. 체력을 다 측정하고 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력을 검정 받게 된다. 체력검정 시 표준 30% 안에 들 어가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참가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체력에 따라 개인의 식습관이나 몸 상태를 포함해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력인증센터는 10월말 현재까지 군산소방서와 협약식을 시작으로 영광중학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군산교육

지원청, 서해환경 5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식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약 체결을 통해 전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과학적인 체력관리프로그램이 우리시에 도입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지난 6월 11일 개관 이후, 10월 말 현재 까지 측정인원은 총 2,268명(청소년 1,179, 성인 726명, 노인 363명)으로 이 중 910명이 인증을 받았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신규센터 측정목표 인원 3,500명 대비 64.8%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민자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의 관리부서인 늘푸른공원과 협조하여 전 반적인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제안된 의견도 심의 시 검토하기 바 랐다고 말했다. 소병홍 의원은 농산물 종합가공센 터가 구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인데, 농산물가공 창업보 육 교육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다 해 지역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 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주 의원은 세출예산이 잘 운용 되려면 세입이 적기에 이뤄져야 가 능하므로 세입부서의 자주재원 확충 은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며, 다양 한 연구와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부했다. 김진규 의원은 저출산 현실을 극복 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임 산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개발 및 출산장려 대책이 시급 하다고 판단되며, 시에서 자체적인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 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해 의원은 미륵사지 석탑과 왕 궁리 유적지에 설치한 야자매트를 외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방송 에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의 현장감사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 였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 랐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장영원 기자

##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5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 해 관계 공무원, 시의원,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해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고령·여성농 등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먹거리 취약계층

복지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지시에 따라 관내 분야별 먹거리 실태조사,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종합계획 및 전략별 실행계획 수립, 운영주체 구성 방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정취하고 참석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본격 추진

군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 추가 건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서군산 복합체육센터(가칭) 건립사업이 2019년 제3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전히 통과 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산복동 33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국비 84억, 지방비 196억)을 투자해 전체 부지면적 34,795㎡, 연면적 7,000㎡ 규모로 25m 10레인의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세월호 사고 등 증가하는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가파른 증가 추세인 노인 수영인구에 대처하고자 실내수영장 추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사업비 확보, 경영폴 규모 등에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지만 이번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본 사업은 이전 확보된 10억(2018년)을 기반으로 오는 2020년 상반기 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 공사를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